

GIST 반도체공학과 신설... 첫 신입생 30명 선발 전문가 양성 소수정예 교육과정 3월부터 운영

- 세계적 수준의 산업밀착형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기대
- 정시모집 약 70대 1 경쟁률... 5년 뒤 삼성전자 입사기회 열려



▲ (왼쪽부터) GIST 반도체공학과 윤훈한 교수, 신현진 교수, 이동선 학과장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삼성전자 채용 연계형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**반도체공학과(학과장 이동선)의 첫 신입생 30명을 선발하고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.**

올해 입학은 시작으로 2028년까지 매년 30명씩 총 150명을 학·석사통합과정으로 선발하는 GIST 반도체공학과는 **현장실무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 양성과 산업체가 원하는 반도체 연구 개발을 통해 삼성전자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.**

GIST와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반도체 공정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업무협약을 맺고, **삼성전자 채용 연계형 반도체공학과 학·석사 통합 5년 과정을 운영하**는 데 뜻을 모았다.

학사 과정(7학기)과 석사과정(3학기)을 이수하는 동안 입학생에게는 등록금 및 기숙사비 전액, 해외연수, 기업/연구소 현장 체험 학습, 삼성전자 임직원 멘토와의 만남 등 **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기회가 지원된다.**

무엇보다 정규 교육과정 이수 후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삼성전자에 채용되어 **반도체 공정 기술 및 회로 설계 직무를 수행**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.

채용 연계형 과정인 만큼 선발된 학생들의 직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GIST는 **탄탄한 교육과정을 구성**하고 삼성전자 출신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등 **12명(전임교원 2명, 겸무 10명)의 교원을 확보**하고 **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**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.

GIST 반도체공학과는 박막·노광·식각·산화·후속 공정 및 물리·화학적 분석 등이 가능한 총 **44대 장비를 갖춘 화합물반도체 광융합 나노공정센터**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현재 칩렛 이중 집적 및 팬아웃 패키징 등 **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위한 첨단 공정 팹을 구축**하고 있다.

이동선 학과장은 “세계적 수준의 산업밀착형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을 목표로 반도체 설계와 공정에 대한 교육은 물론, **반도체 산업현장에 관한 연구까지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**”이라며 “GIST 반도체 특화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이 **반도체 공정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**하겠다”고 밝혔다.